

보사부 올해 보육사업 확대방침 발표

저소득층 아동 위한 보육시설 1백개소 신축 예정

보사부에서는 올해 안에 보육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육사업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 발표했다.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폭증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사업은 지난 90년부터 보사부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중요정책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92년말 현재 전국 4천5백13개소에서 12만3천명의 아동만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어 총 보육대상아동의 12.3%만이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93년 현재 취업모의 0세에서 5세 아동이 총1백77만4천명이 고 집안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대상아동은 1백만명으로, 이를 위해

3만3천개소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보사부는 이중 올해안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 아동을 8만1천명으로 보고 나머지

일반아동 91만9천명에 대해서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본인부담으로 보육을 실시할

<보사부 93년도 보육사업 추진 계획>

보육시설 확충	정부지원 대상 범위 확대	보육사업 확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추진예정)
●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100개소 신축(예산:33억8천1백만원) ●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시설 전환(현 250→451개소) ●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환희망시설의 무자격 원장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 ●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실시(시설수:현 100→451개소, 예산:22억8천7백만원) ● 저소득층지역 신규설치 시설에 놀이기구 등 기본장비 구입비 80개소에 지원	● 시설운영비 현재 9백73개소에서 1천5백6개소로 확대, 3천4백만원씩 지급 ● 법정저소득계층 및 가구당 월 소득이 70만원 미만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 • 전자, 1인당(보육비전액) 3세미만:10만5천8백40원 3세이상:6만7천9백30원 • 후자, 1인당(보육비50%) 3세미만:4만9천6백40원 3세이상:3만1천8백60원 - 현재 4만3천5백61명에서 6만1천95명으로 확대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92년 대비 14.2% 향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복지수당 10%, 기본급 5% 인상	●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업체인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 183개소 중 18개소만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유도(보육교사의 대량양성 배출을 통한 30인미만 소규모 보육시설 참여유도,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기준을 갖추는 경우 제한없이 위탁·선정, 지역 사회인사·종교계 등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촉구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시책 추진)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추진 -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 중 유치원 교원자격을 가진자에 대해서 보육시설근무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저소득층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의 보육비는 보사부에서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로 보육료를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93년도 표준보육비용은 전년대비 평균 4.6% 인상됐다.

또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기간(92~96년)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

상자의 자녀를 포함한 일반보육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96년까지 저소득보육아동 8만1천명을 보육하기 위한 1천8백67개소의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설치 민간보육시설 등을 정부에서 지원, 확충하고 일반보육아동 94만7천명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3만1천여개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